



역사의 한 가운데 있었던 기쁨

이문우/청년여성문화원 원장

요즘에는 '살림살이'에도 "가사노동"이라는 이름을 붙인다. 그것은 '살림살이'도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아울러 여성의 법적 지위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80년대까지만해도 여자의 '집안일'이란 결혼을 한 여인이 당연히 해야 하는 무보수의 의무였다.

남자는 물론 여성자신들도 가정에서 가족들의 삶을 위해 기본적 필수 조건들을 제공하기 위해 하루종일 일하는 것이 남자들이 직장에서 돈을 버는 일 만큼 가치있는 노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나의 사회생활의 시작은 첫아이 출생 6개월이 지난 쯤 부터였고 중학교 시간강사로 시작하였다.

학교를 옮겨 전입교사도 했고, 인천의 공장지역에서 산업선교의 일도 했다. 그러나 여성으로서 지각을 갖고 본격적인 직장생활을 한 것은 1975년 한국교회여성연합회의 총무로 부임하면서 부터다.

그 당시 총무직 요청을 받았을 때 남편은 "첫째와 둘째아이를 직장에 다닌다는 것 때문에 제대로 보살피면서 키우지 못했으니 셋째인 막내는 좀 잘 키워보자"는 제안을 했다. 그러나 나는 막내가 세 살 때 당시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회장이셨던 은사님(이우정 교수)의 뜻을 따랐던 것이다.

1975년은 UN이 세계여성의 해로 선포한 해이다. 그리고 향후 10년은 여성의 발전과 남녀가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법적 제도적 개혁을 촉구하는 '여성 10년'이었다.

세계여성들과 더불어 한국에서도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인간임을 의식화 시키는 교육이 여성단체들마다 만연했다. 내가 일하고 있는 한국교회여성연합회에서는 교회여성들에게 '여성신학'을 강의

하고 성서를 재해석하는 성서연구회가 교회여성들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주었다.

1970년대부터는 국내적으로는 군사독재하에서 민주화운동이 치열해지기 시작한 때이다. 여성들도 이 대열에 서서 민주화운동에 함께 참여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한편 60년대부터 이미 산업사회로 변하면서 여성인력이 산업전선에 투입되고 있었다.

이들은 아주 열악한 근로조건하에서 출대를 받고 있었다. 따라서 여성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노조활동의 보장을 주장하는 구체적인 운동, 이 과정에서 발생한 많은 사건들은 역사의 한 장을 차지하게 된다.

이렇게 80년대에는 나라의 민주화를 위한 투쟁 속에서 고난을 겪다가 90년대를 지나면서 하나 하나 결실을 맺는 기쁨을 가져오게 된다.

가족법개정, 남녀고용평등법 통과, 성폭력방지법과, 가정내 성폭력방지법제정, 성차별적교육의 개선 등 사회전반에 걸쳐 남녀평등적인 방향으로 법적 제도적 개혁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본다.

나는 지나온 내 30여 년의 생활이 여성운동과 민주화운동의 소용돌이 역사의 한 가운데서 함께 울고 웃고 지내온 것에 대해 큰 보람과 기쁨을 느낀다. 내가 몸담아 일했던 한국교회여성연합회, 기독교가정생활위원회, 여성의 전화, 참여원 등 내가 관여했던 단체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

내가 만일 가정의 한 주부로 안주했다면 지금의 내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 물론 어머니로서의 역할, 아내로서의 역할, 가족의 한 일원으로서의 역할이나 책임에는 빈틈이 많았지만 한 인간으로서의 삶의 보람과 가치를 느끼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